

제 33 호

연중제 15 주일  
(강림 후 5)

1973. 7. 15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법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강 료】

## 이 자 (利子)

김 영 일 신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덕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덧붙여 주어질 것입니다”(마태오 6장33절)

“하나님의 의덕을 구하십시오” 하는 말씀은 우리 모든 이가 의덕을 실천함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숲정이”에 나타난 6개본당 소식란에 진동성당만 빼놓고 5개본당은 한결같이 <교무금을 7월달내에 완납함시다>라는 호소로 소식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녕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의(義)」를 실천 못한 분이 상당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싸워서 아무것도 못한다”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것을 하나님에게 받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롱거나 잊어버려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기타 모든 것을 주시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이자를 지불해야만 의로운 자가 될 것이고 의를 실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남에게 빚졌을때 반드시 갚아야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신용이 있고 착실하다면 주는 분이 더 주고 싶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하시었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덧붙여 주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시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에게 이자를 잘 갚을 때에는 「의」를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덧붙여 주심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우 한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빚을 내서 거년도 금년도 교무금을 완납하러 왔습니다”-“빚을 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했더니-“말씀은 하나님의 빛이 더 무섭습니다”-그래서 말올하는 사람에게 빚을내서 갚으면 빨리 자신이 품팔이라도 해서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순서를 지켜줄 아는 교우이구나 생각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입어야 할지를 걱정해야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덕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사랑과 기쁨을 받을 행위가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당신 약속을 당신 백성들에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서학동 주임신부>

### ✽ 이 주일의 미사 ✽

□임당송 나는 외로움으로 당신 얼굴을 외오리다. 깨어난 당신을 외움으로 흠족하오리다.

□제1독서 (아모스 7; 12-15)

예언자야 내 백성을 찾아 가거라.

□총계송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주께서 행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아 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

□제2독서 (에페소 1; 3-14, 성서 P. 437)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뽑아주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우리의 마음 눈을 비추시어, 우리 성소의 희망을 알게 하소서,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6; 7-13, 성서 P. 87)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 □신자들의 기도

1. 자연을 섭리하시는 주여, 비를 필요로 하는 당신의 백성을 굽어 보시어 알맞은 비를 내려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여, 전세계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 서로 협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미덕을 심어 주소서. ◎

3. 교회를 비취 주시는 성신이며,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 살림에 관심을 가져 이를 도우게 인도하소서. ◎

+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는 주여, 우리들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노라.

### ✽ 이 주간의 성경 ✽

- 16(월) 독서 (필립 비 2: 1-11, 성서 P.450)  
복음 (마 태 오 10: 34-11, 성서 P. 22)
- 17(화) 독서 (필립 비 2: 12-18, 성서 P.451)  
복음 (마 태 오 11: 20-24, 성서 P. 24)
- 81(수) 독서 (필립 비 3: 1-10, 성서 P.452)  
복음 (마 태 오 11; 25-27, 성서 P. 25)
- 19(목) 독서 (필립 비 3: 12-21, 성서 P.453)  
복음 (마 태 오 11: 28-30, 성서 P. 25)
- 20(금) 독서 (골로사이 2: 20-23, 성서 P.459)  
복음 (마 태 오 12: 1- 8, 성서 P. 25)
- 21(토) 독서 (골로사이 3: 5-11, 성서 P.460)  
복음 (마 태 오 12; 14-21, 성서 P. 26)

□본당 코너□

### 새 전동을 위하여

-내부 수리를 하면서-



전동 성당은 1908년 윌신부님 (X. Baudounet)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불란서인)에 의해 착공되어 여러차례 눈물겨운 역경을 당하면서, 1914년에 준공 되었습니다.

성당의 화려웅장함은 남한일대에서 제일이며, 건축학 상으로 또는 미술적 가치를 갖춘 로마식 건물로 건축된 보물급에 해당된 건물로 잘 보존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전주 교구의 절물이라고 볼 수 있는 어머니 교회 「전동」이 이제 그 외적인 면에서부터 새로워 지려고 하는 모습을 소개해 봅니다.

#### <사업의 개요>

1. 성당 마루바닥을 인조석으로 개조(제대부분은 그대로 둠)
  2. 공사기간 ; 1973년 7월 9일 ~ 7월 30일
  3. 소요예산액 ; 1,500,000원
- ※ 예산이 허락하면 유리도 개조할 예정입니다

#### <사도회의변>

본당 사도회에서는 본공사를 시작하면서 여러차례 회합을 통하여 본공사의 장점과 단점을 심사 분석 검토 하

여 교구청의 승인을 얻어 본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본당의 삼천여 신자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씩 힘을 합쳐 주신다면 이 어려운 공사는 무사히 마칠것으로 사료 됩니다.

시내 6개 성당중 유독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성당만이(노송, 덕진 성당은 차차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 제외) 신발을 벗어야 하기에 미사에 나오는 것 마저도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 실정해, 여러가지 불편을 당하면서도 그저 있을 수만 없어 어려운 용단을 내렸습니다. (겨울 추울때는 온방장치를 무더운 여름에는 난방방치도 구상 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할일>

지난 7월 9일 본공사가 시작되어 마루바닥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 하였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작업반이 편성되어, 그 많은 나무들이 깨끗하게 못이 빠지고 하루만에 창고에 질서 정연하게 넣어 졌습니다. 적어도 2, 3일 걸릴것으로 예상 했던 작업은 우리 신자들의 사랑의 힘으로 거뜬히 해치워 졌습니다. 마루를 철거하려면 경비도 약 5만원이 소요될 것이 돈 한푼 안들고, 오직 사랑과 신앙의 힘으로 해치워 졌습니다.

이 사랑의 작업반은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무더운 수도복을 입은 세분의 수녀님께서도 팔방울을 뚝뚝 떨어 뜨리며 고운 살결을 가랑게 그을려가며 우리 본당의 발전과정에 힘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가지로 바쁜 가운데에도 행여 공사에 차질이 있을 까봐 찾아와 보살피고 작업을 하는 사도회 임원, 본공사에 적극 협조하신 남여신자 여러분, 그리고 본당 신학생 여러분께서 고맙게도 이 무서운 더위에도 싫다 하지 않고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 사랑의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호백발 할머니까지 한줌의 흙이라도 운반하기 위하여 때야나 수대등을 가지고 나오시어 흙을 운반 합니다, 아니 은총을 운반합니다.

하루 벌이에 바쁜 노동자도, 장사하는 분도 이 사랑의 작업에 참여하여 흙을 파고 흙을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본당 삼천여 신자 모두 힘을 합쳐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협조 하여야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와 열이 흐르는 이 고장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을 우리의 손으로 아름답게 꾸며 길이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해의 성년」을 맞은 첫째, 성종의 보고를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 ①※ 세대당 사물정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 ② 본사업에 물질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전동교회 사도회)

### 전주전 신전화국 앞

제과 @50111 찻집 @5013

\*개업\*

프랑스 제과  
\* 임금님 찻집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원준(야코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 왕자표연탄

전화: @5287 @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운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수옥 (분도)

\* 대화의 광장

\* 잔디밭



### 신자와 재물

—돈은 행복의 수단이라지만  
불행올 더 잘 낚는다!

김 병 화 신부

한국 속담에 돈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청지라」는 말이 있다. 돈이면 만사 O·K란 말일게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같지만 웃어 넘길 수 없는 바로 오늘의 현실, 현대인의 사고방식 이 아니냐? 그래도 어떤 현자(賢者)는 이런 말을 한다. “돈을 가지는 데도 여러 방식이 있다. 소위 돈을 잘 번다는 사람은 한푼 없게 되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재산만을 가지고 있다”고.

현제……

누구는 돈을 보고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란 말을 했듯이 (F. 베이컨), 그 자체가 결코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는 것, 잘 벌여 잘 쓰면 좋은 것이요, 잘못 벌여 잘못 쓰면 나쁠 뿐이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 그 마음속에 달렸으니가. 그래 돈이란 잘 쓰는 것이 곧 버는 것이란 말조차 나왔나보다.

돈이란 사실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라” 말들은 하면서도 우린 그런데, 흔히 이 돈을 나의 「종」 아닌 상전 마냥 떠받들어 모시다가는 그만, 거기 엮매어 헤어지지 못 한채 자신마저 잃고 끝나는 어둡고 슬픈 종말 속으로 빠져들지 않던가? 어느 인사의 탄식을 들어보자 “돈, 그 망할놈의 돈이, 그들을 다 버려놓은 것이야……그것이 그들을 나로부터 멀게 해 놓은 것이야. 어리석은 나는 그것을 모으느라고 고생을 한 끝에 내 스스로를 도난 당하고 빈곤하게 하고 그들까지도 나쁘게 만들어 놓았어……” (S. 프바이크 “마음의 파멸”에서)

이제나 저제나 고놈의 「돈」이 말썽 이길래, 주님께서도 오늘은 이 골칫거리에 대한 처신을 제자들에게 일러 보 이신다. 물론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인들, 지상의 나그네인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그 필수품이요 생활의 방편인 재물과 돈 없이 살수 없다는 것쯤 모르실리 한부하다. 그러나, 비록을 선포하고 하늘의 진리를 좇는 신앙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현세적인 것, 재물이나 돈에 너무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보다도 더 귀중한 자신을 잃음 없이 「참된 행복」인 「천국」을 먼저 보고 좀 더 초연히 생을 알지게 다지도록 가르치시는 것이다.

돈, 돈, 돈……마랄 때는 언젠가지만 부족하고 무심할 때 향지 남는다!

자고로 돈만 빠치던 인간들, 신도며 교직자,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 뎨 욕을 얻었고, 비록 가난은 했지만 분명히 진리와 정의를 좇던 사람들, 또 교회들은 힘이 있었고 역사에 길이 존경과 추앙을 받지 않던가?

「돈」, 돈은 필요하고, 사용하면 그로하여 영부(永福)까지도 얻을 수 있다. 허나, 절도 없는 타령과 욕심이 그를 낚고, 또 행운을 일구는 것 아니요, 오직 「고운 마음씀」이 그를 따르게 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 다시 명심 하자. 돈 따라 죽기 보단 돈 없이 살려는 현명한 참 실리주의자(實利主義者) 모두 되어 주기를……

비록 몸이야 지상에 배인 우리현방정 이상만은, 꼭포만은 항상 천국(天國) 안에 두고 잘야 할 생물이니까  
<천주교 고창교회 주임>



더위에 더욱 건안하심을 비나이다.

—술정이 편집실

###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 3498)

가톨릭 센터를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센터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을 좀 더 편리하게 모시고자 올 여름에 온방시설을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7월, 8월) 시민 여러분을 모실 수 없어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덤고 긴 여름동안 부디 건안하시어, 9월이오면 밝은 얼굴로 다시 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1973년 7월  
관장 박 진 량 아뢰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 신 우 라 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32212 37071)  
김 병 구(빈첸시오)

\* 축 발전 \*

## 동 남 샤프

전 주 대 리 점

전화 8121  
여 요 셉(윤장)

전주 시내 6개 분당 소식

1. 성 프란치스코 재속 전주 방지거 형제회 임원 명단

회장	강 제희(베드로)	모집 책임자	원 현석(분도)
부회장	이 경호(바오로)	연락 책임자	봉 영순(수산나)
수련장	허 순덕(테레사)		정 옥규(마리테레사)
총 무	최 성환(분도)		한 귀자(말지나)
회 케	이 두만(누가)	간호 책임자	오 재희(헤레나)
			유 순자(마리아)
			하 경호(막다레나)

이상 지난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지도신부가 임명함.

2. 학생회 전주 지구 연합회 제6차 봉사활동

다 주요일 오전 5시 반까지 전등으로 비를 들고 모임시다. 많이 참여합니다.

(중암)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성년행사 다음주일에 성년행사 계획을 발표하겠아 오니 전 교우의 참석을 바랍니다.
3. 첫 영성체 교리 첫 영성체를 받을 어린이들을 배 일 오후 5시까지 교리반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용조합 통장 제출 반년후 결산상 필요하오니 조 합원들은 통장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33,738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철 사도 회장 김낙철

1. 중 고등학생 교리 공식미사 (10시)후 있습니다.
2. 주일학교 아동수가 차츰 주는 현상이오니 학부형 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의와 열의로써 분당 유지와 교구 납부금이 무난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 하기 아동 특별 교리를 여름방학 즉시 시작할 것을 예고해 드립니다.
5. 오는 17일에는 광곡리 예수교 신자 학생과 분당 학 생끼리에 친선 운동시합이 있으니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 대제사 안베드로 삼용씨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 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9,977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술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부녀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신입하신 교무금을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일 봉헌금 배가운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4.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첫 영성체 교리에 부모님 께서는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분당 신축기금 및 성미운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신축성미, 두가마 □ 지난 주일 봉헌금 10,826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교미시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사제관
  2. 첫 영성체 특별교리 매일 오후 5시
  3. 구역미사 봉헌  
전 동 7월17일(화)밤8시30분 청인찬씨대  
풍 남 동 7월18일(수)밤8시30분 이상현씨대  
남노송동 7월19일(목)밤8시30분 구역회장대(이경순)  
중앙, 다가, 경원동 7월20일(금) 밤8시30분 미미제  
과소(상업은행영)
- ※ ①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② 구역미사 전후 고백성사를줍니다
4. 동암산동 구역회장 임명; 최기열(바오로)씨를 임명
  5. 분당 마루바닥을 인조석으로 개조합니다.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합니다. ① 오늘 사도회에서는 여러분의 회사금을 접수합니다. ② 공사기간중 주일미사는 현장에서 지내고 평일에는 사제관에서 미사를 지냅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검진 기념사진이 나왔습니다. <값 150원> 사진을 독서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 교리반 교리서를 빨리 구입해 주십시오.
3.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임원회에서 전달사항이 있으니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4. 교무금을 7월중에 완납합니다.
5. 주일금 배가운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5,11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7월은 교무금 완납의 달.
2. 어머니 성가대 연습 <매주 월요일 저녁미사후>
3. 고백성사(매주 토요일저녁 미사후, 주일 배 미사전)
4. 오늘 오후 1시30분 교미시움 회합 전등에서
5. 주일 봉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6. 신부님의 건강회복을 위해 계속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0,173원  
지난 주일 성미 2말 6되 현금 250원  
누계 166말 6되 5홉 감사합니다.

- <본 사업에 적극 협조하신분들>
- 양윤모 씨 자갈 100추력 (약 20만원)  
송영선 씨 현금 3만원과 공사중 막걸리 전담(약2만원)  
장준수 씨 현금 5만원 양한승 씨 현금 2만원  
전희생 씨 현금 5천원 권원자 씨 현금 1천원  
우덕수 씨 현금 1천원  
계 현금 10만 7천원  
자갈 100추력 막걸리 (약 2만원)  
□ 지난 주일 봉헌금 26,145원, 감사합니다.  
애령회 특별 현금 6,634원, 감사합니다.